

2021년 독일 총선 분석과 전망

이현진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유럽팀 전문연구원 (hjeanlee@kiep.go.kr, Tel: 044-414-1226)



차 례

1. 2021년 독일 연방하원의회 선거 결과
2. 2021년 총선의 특징
3. 주요 정책분야별 공약 비교
4. 정부 구성 전망

주요 내용

- ▶ 2021년 9월 26일 제20대 독일 연방하원의회(Bundestag) 선거가 실시되었으며, 시민당이 기민/기사당을 근소한 차이로 앞서는 하였으나 기존의 확고한 지지층의 감소로 양당 선두체제에는 변화가 불가피
 - 총선 결과 제2투표(비례대표 투표) 득표율은 시민당(25.7%), 기민/기사당(24.1%), 녹색당(14.8%), 자민당(11.5%), 독일대안당(10.3%), 좌파당(4.9%) 순이며, 득표율이 5%에 미치지 못한 좌파당 역시 연방하원 입성에 성공
 - 총 의석수는 735석으로 2017년 총선 대비 26석 증가했으며, 시민당 206석, 기민/기사당 196석, 녹색당 118석, 자민당 92석, 독일대안당 83석, 좌파당 39석, SSW 1석을 확보
- ▶ 이번 총선은 △위드 코로나 연방선거 △메르켈 이후 양대 정당간의 격전 △녹색당의 성쇠 △법적 지원을 받는 장애인의 투표 참여 등이 특징적
 - 연방 차원의 첫 위드 코로나 선거로, 우편을 이용한 사전투표율이 증가했고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가 성행
 - 시민당과 기민/기사당 간 박빙이었으나, 정치적 인지도가 높은 솔츠 총리후보를 내세운 시민당이 승리
 - 여론조사상 녹색당에 대한 지지율이 한때 최선두를 달렸음을 감안할 때 총선 결과 '3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으나, 녹색당으로서는 총선 사상 최대 득표율
 - 연방선거법의 개정으로 법적 지원을 받는 장애인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져 처음으로 연방총선에 참여
- ▶ 시민당 중심의 연정협상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, 협상 난항으로 연방정부 구성에 오랜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 존재
 - 시민당이 총 206석으로 최다의석을 차지했으나, 과반석(368석) 확보를 위한 선택지는 협소한 편
 - 시민당, 녹색당, 자민당의 '신호등 연정' 혹은 기민/기사당과 대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,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, 연방정부가 구성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
 - '신호등 연정' 협상이 성공할 경우, 연방차원에서는 통일 이후 최초의 다당 연정 내각이 형성

1. 2021년 독일 연방하원의회 선거 결과

- 2021년 9월 26일 실시된 제20대 독일 연방하원의회(Bundestag) 선거(이하 총선) 결과, 사민당(SPD: 사회민주당), 기민/기사당(CDU/CSU: 기독교민주당/기독교사회당 연합), 녹색당(Bündnis 90/Die Grünen) 순으로 의석수가 배분됨.¹⁾²⁾
 - 제2투표(비례대표 투표)의 득표율은 사민당 25.7%, 기민/기사당 24.1%, 녹색당 14.8% 순임.
 - 제1투표(선거구 투표)는 299석이나 제2투표는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'299+a' 석으로, 이번 총선에서는 총 735석으로 결정됨.
 - 47개 정당과 6,211명의 후보가 참여한 가운데 '5% 원칙'에 따라 6개 정당 및 예외원칙을 적용한 1개 정당이 연방하원의회에 진출함.
 - '5% 원칙(Sperrklausel 혹은 5%-Hürde)'이란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고자 제2투표에서 5% 이상 득표 혹은 제1투표에서 3석 이상 확보한 경우에만 연방하원에 진출하도록 허용하는 것임.³⁾
 - 좌파당은 제2투표에서 5%를 넘기지 못했으나 제1투표에서 3석을 확보하여 진출 가능함.
 - '남슐레스비히 유권자연합(SSW: Südschleswigsche Wählerverband)'은 연방선거법이 정하는 소수민족 정당으로, 5% 원칙이 미적용됨.
 - 이번 총선의 투표율은 76.6%로 2017년 총선 대비 0.4%p 상승했으며, 제2투표에서의 무효표 비중은 0.9%로 2017년 총선 대비 0.1%p 하락함.

표 1. 2021년 및 최근 총선 결과

구분	2021년 총선				2017년 총선		2013년 총선	
	총 의석수 (석)	제1투표 의석수(석)	제2투표 의석수(석)	제2투표 득표율(%)	총 의석 수 (석)	제2투표 득표율(%)	총 의석수 (석)	제2투표 득표율(%)
사민당	206	121	85	25.7	153	20.5	193	25.7
기민/기사당	196 (151/45)	143 (98/45)	53	24.1 (18.9/5.2)	246 (200/46)	33.0 (26.8/6.2)	311 (255/56)	41.5 (34.1/7.4)
녹색당	118	16	102	14.8	67	8.9	63	8.4
자민당	92	-	92	11.5	80	10.7	-	4.8*
독일대안당	83	16	67	10.3	94	12.6	-	4.7*
좌파당	39	3	36	4.9	69	9.2	64	8.6
SSW	1	-	1	0.1	-	-	-	-
의석수 합계	735	299	436		709		631	

주: *는 의회 진출 실패를 의미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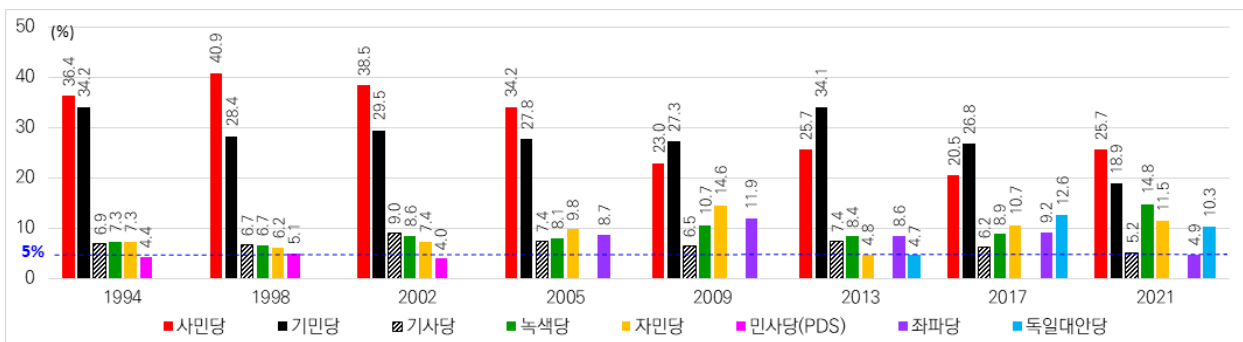
자료: Der Bundeswahlleiter, "Bundestagswahl 2021: Vorläufiges Ergebnis," https://www.bundeswahlleiter.de/info/presse/mitteilungen/bundestagswahl-2021/50_21_vorlaeufiges-ergebnis.html(검색일: 2021. 9. 27).

- 1) 기민당과 기사당은 자매정당으로, 기사당이 독일 16개 연방주 중 바이에른 주에서만 활동하고 기민당이 나머지 15개 주에서 활동함.
- 2) 독일 총선의 유권자는 1장의 투표지에 2개의 기표를 하도록 되어 있음. 투표지 왼편에는 총 299개 선거구 중 유권자가 해당하는 선거구에 대한 투표인 '제1투표'를 하도록 되어 있고, 오른편에는 선호하는 정당에 기표하여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'제2투표'를 하도록 되어 있음.
- 3) BpB, "Fünf-Prozent-Hürde," <https://www.bpb.de/mediathek/614/fuenf-prozent-huerde>(검색일: 2021. 9. 17).

■ 이번 총선에서는 기민/기사당에 대한 지지율 하락과 사민당 지지율 상승으로 사민당이 기민/기사당을 근소한 차이로 앞섰으며, 기존의 확고한 지지층이 줄어들어 양당 선두체제에 변화가 불가피함.

- 사민당은 제2투표 득표율이 2017년 총선 대비 5.2%p 상승한 반면, 기민/기사당은 8.9%p(기민당 7.9%p, 기사당 1%p) 하락함.
 - 양당간의 격차가 1.6%p에 불과
- 녹색당은 지난 총선 대비 제2투표 득표율이 5.9%p 상승하여 창당 이래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으며, 확보 의석수도 100석을 초과하는 쾌거를 이룸.
- 자민당의 지지율도 지난 총선 대비 소폭(0.8%p) 상승함.
- 2017년 총선 당시 녹색당보다 많은 지지를 받았던 좌파당과 독일대안당의 제2투표 득표율은 각각 4.3%p, 2.3%p 하락함.
 - 특히 좌파당은 제2투표 득표율이 5%에 미치지 못했으나, 제1투표 결과에 따라 간신히 의회 진출에 성공

그림 1. 제2투표 득표율 추이



주: '민사당(PDS)'은 좌파당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음.

자료: Der Bundeswahlleiter, "Bundestagswahl 2021," <https://www.bundeswahlleiter.de/bundestagswahlen/2021.html>(검색일: 2021. 9. 27).

2. 2021년 총선의 특징

■ [위드 코로나 연방선거] 이번 총선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는 상황에서 진행된 첫 연방선거로, 우편을 이용한 사전투표율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남.

- 독일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는 상황으로, 우편을 이용한 사전투표율 증가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예상이 제기된 바 있음.⁴⁾
 - 이번 총선의 사전투표 비중이 57.2%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됨.⁵⁾

4) Frankfurter Rundschau(2021. 8. 17), "Wie die Corona-Pandemie die Bundestagswahl 2021 beeinflusst," <https://www.fr.de/politik/bundestagswahl-2021-corona-pandemie-briefwahl-urnenwahl-wahlhelfer-regeln-90926572.html>; Süddeutsche Zeitung(2020. 8. 26), "Schon jetzt eine schwere Wahl," <https://www.sueddeutsche.de/politik/bundeswahlgesetz-bundestagswahl-kandidaten-corona-1.5010880>(검색일: 2021. 9. 23).

5) Tagesschau(2021. 9. 10), "Bundeswahlleiter und Forsa streiten," <https://www.tagesschau.de/inland/btw21/streit-sonntagsfrage-101.html>(검색일: 2021. 9. 23).

- 연방선거 사전투표는 약 6주 전부터 선거일 직전 금요일 오후 6시까지의 우편투표 신청을 통해 진행되는데, 희망하는 유권자는 누구나 거주 지역의 관할 지방정부에 사전투표를 신청할 수 있으며, 총선 당일 선거종료시각 전까지 우편으로 도착한 경우에만 유효표로 인정⁶⁾
- 위생수칙과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모든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가 가능함에도 일부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진다. 이는 음모론 성격의 가짜뉴스가 성행하여 연방선거관리위원회(Bundeswahlleiter)가 이에 대한 사실(팩트)을 설명하면서 공식적으로 대응하기도 함.⁷⁾
- 백신접종자(geimpfte), 코로나19 감염 후 회복자(genesene) 혹은 코로나19 검사 음성판정자(negativ getestete Personen)를 줄여 '3G'라 부르는데, 3G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가짜뉴스가 퍼진 바 있음.

■ [메르켈 이후 양대 정당 격전] 막판까지 사민당과 기민/기사당이 각축하였으나, 정당별 총리후보 중 가장 인지도가 높은 솔츠를 내세운 사민당이 근소한 격차로 승리함.

- 2017~21년 대연정 정부의 부총리 겸 재정부장관인 사민당의 올라프 솔츠(Olaf Scholz) 총리후보는 자금 세탁 등의 스캔들이 재기되었음에도 총리후보 TV 토론회에서 '승리했다'고 평가받았으며, 강력하고 안정적인 인상을 바탕으로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지지율 상승세가 지속됨.⁸⁾
- 솔츠 총리후보와 관련하여 자금세탁 관련 조사기관인 FIU의 부실 활동, 대가성 세금감면인 Cum-Ex 거래, 회계장부 조작인 Wirecard 스캔들 등 다수의 의혹이 불거진 바 있음.⁹⁾
- 재정부장관으로서 실시한 '코로나19 대응 긴급지원' 등의 정책이 총선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으며, 사민당은 솔츠 총리후보의 인지도를 이용하여 '솔츠를 원하면 사민당에 투표하라'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기도 함.¹⁰⁾
- 기민/기사당은 정치적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아르민 라셰트(Armin Laschet) 총리후보 선임 이후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, 메르켈 총리의 유세 지원에도 불구하고 독일 통일 이래 총선 사상 가장 낮은 득표율을 기록함.
- 지난 16년간 집권한 메르켈 총리의 하야가 기민/기사당에 대한 충성도를 약화시키고 부동산 증가를 유발한 것으로 평가됨.¹¹⁾

6) Der Bundeswahlleiter, "Bundestagswahl 2021: Briefwahl sollte jetzt beantragt werden," https://www.bundeswahlleiter.de/info/press/mitteilungen/bundestagswahl-2021/34_21_briefwahl-jetzt-beantragen.html(검색일: 2021. 9. 17).

7) Der Bundeswahlleiter, "Erkennen und Bekämpfen von Desinformation," <https://www.bundeswahlleiter.de/bundestagswahlen/2021/fakten-fakenews.html>(검색일: 2021. 9. 17).

8) Deutsche Welle(2021. 9. 19), "German election: SPD's Olaf Scholz wins final TV debate," <https://www.dw.com/en/german-election-spd-olaf-scholz-wins-final-tv-debate/a-59234530>(검색일: 2021. 9. 23).

9) Financial Times(2021. 9. 16), "Scholz summoned before German MPs over money-laundering scandal," <https://www.ft.com/content/32a73baa-4ada-43cc-a2e6-8b2884634931>; Deutsche Welle(2021. 9. 19), "Skandal oder Kampagne? Olaf Scholz und die Folgen einer Razzia," <https://www.dw.com/de/skandal-oder-kampagne-olaf-scholz-und-die-folgen-einer-razzia/a-59217173>(검색일: 2021. 9. 24).

10) BBC(2021. 9. 22), "German elections 2021: 'Bazooka man' Olaf Scholz bidding for chancellor," <https://www.bbc.com/news/world-europe-53735728>; Salzburger Nachrichten(2021. 9. 22), "'Scholzomat' im Kanzlermodus: Warum der SPD-Mann auf den letzten Metern noch punkten konnte," <https://www.sn.at/politik/weltpolitik/scholzomat-im-kanzlermodus-warum-der-spd-mann-auf-den-letzten-metern-noch-punkten-konnte-109849600>(검색일: 2021. 9. 24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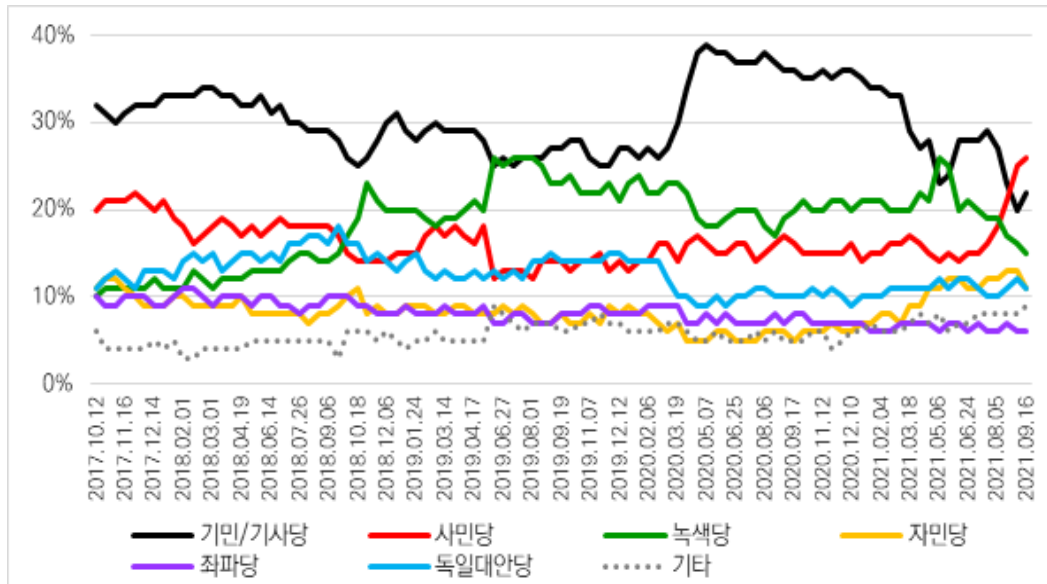
11) Deutsche Welle(2021. 9. 21), "German election: Why many voters are still undecided," <https://www.dw.com/en/german-election-why-many-voters-are-still-undecided/a-59251080>(검색일: 2021. 9. 24).

- 정치적 인지도가 더 높은 기사당의 마르쿠스 쾨더(Markus Söder) 대표가 총리후보였다면 기민/기사당의 지지율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.¹²⁾

■ **[녹색당의 부상과 하락]** 아나레나 베어복(Annalena Baerbock)을 총리후보로 내세운 녹색당의 지지율이 한때 최선두를 달리기도 했으나 실제 총선까지 지속되지는 못함.

- 2021년 4월 녹색당이 베어복을 총리후보로 내세우면서 지지율이 급상승하여 최초의 녹색당 총리이자 두 번째 여성 총리에 대한 기대감이 퍼졌으나, 러시아 국영 독일방송인 RT DE의 ‘녹색당 때리기’ 등의 영향으로 6월 이후 하향세가 나타남.¹³⁾
- 러시아발 왜곡보도와 음모론이 베어복 총리후보와 녹색당을 집중적으로 겨냥했다는 비판¹⁴⁾

그림 2. 2017년 총선 이후 각 정당에 대한 지지도 여론조사



자료: <https://www.wahlrecht.de>, ARD-DeutschlandTrend 및 Infratest dimap(검색일: 2021. 9. 17) 재인용.

■ **[장애인 참정권 확대]** 법적인 지원을 받는 약 8만 5천 명의 장애인에게도 처음으로 투표권이 부여되면서 장애인 의견이 정책에 보다 잘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음.¹⁵⁾

12) Der Tagesspiegel(2021. 9. 2), "Union verliert weiter - Wähler wünschen sich Markus Söder," <https://www.tagesspiegel.de/politik/forsamfrage-zur-bundestagswahl-2021-union-verliert-weiter-waehler-wuenschen-sich-markus-soeder/27567060.html>(검색일: 2021. 9. 23).

13) Der Tagesspiegel(2021. 6. 21), "Gezielte Diffamierung von Annalena Baerbock," <https://www.tagesspiegel.de/politik/russland-mischt-sich-in-wahlkampf-ein-gezielte-diffamierung-von-annalena-baerbock/27291998.html>(검색일: 2021. 9. 24).

14) Spiegel(2021. 6. 18), "Innenministerium warnt vor russischer Propaganda-Attacke auf Baerbock," <https://www.spiegel.de/politik/deutschland/annalena-baerbock-bundesinnenministerium-warnt-vor-russischer-propaganda-attacke-a-fd0f6408-6e78-45d9-998a-bd1cedcf3089>(검색일: 2021. 9. 24).

15) MDR.de(2021. 9. 21), "Darum sind 85.000 Menschen mit Behinderung bei der Bundestagswahl Erstwählende," <https://www.mdr.de/nachrichten/deutschland/wahlen/bundestagswahl/inklusive-wahlrecht-darum-sind-menschen-mit-behinderung-erstwaelher-bei-bundestagswahl-100.html>(검색일: 2021. 9. 24).

- 이전에는 법적인 지원을 받는 장애인의 경우 연방선거법에 근거하여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았으나, 2019년의 법원 결정으로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 법적 지원을 받는 장애인들도 처음으로 연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됨.¹⁶⁾
- 법적인 지원을 받는 장애인과 달리 가족이나 친척이 돌보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투표권이 있었음.
- 이들의 투표권 행사에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바 악용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었으나, 참정권 확대라는 측면에 더 무게를 두었음.¹⁷⁾

3. 주요 정책분야별 공약 비교¹⁸⁾

■ [환경] 대부분의 정당이 기후변화 및 환경 관련 공약을 제시한 가운데, 녹색당의 공약이 가장 급진적임.

- 시민당과 기민/기사당 모두 2045년까지 기후중립 달성 목표를 수립함.¹⁹⁾
- 녹색당은 재생에너지원 확대를 통한 20년 내 기후중립 달성, 2030년까지 석탄 퇴출, 순환경제 건설을 강조함.
- 자민당은 기후중립 달성 목표시기를 2050년으로 설정함.
- 독일대안당만 환경보호 및 관련 계획에 반대함.

■ [조세/재정] 각 정당별로 조세와 재정 부문에 대한 입장이 상이함.

- 시민당은 상위 5%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언급함.
- 기민/기사당과 자민당은 점진적인 세금 경감을 약속했으며, 기민/기사당은 정부의 부채 상환을 준수하여 재정수지 건전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.
- 녹색당은 고소득층(세금 45% 부과 대상)의 범위를 확대하고, 초고소득층 대상 과세제도(세금 48% 부과) 신설, 친환경 예산 확대, 공공자산 투자 시 재정수지 건전화 목표(debt brake) 미적용 등을 언급함.

■ [EU] 대EU 결속 강화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주요 정당이 공감하고 있으나, 그 실현 방법은 상이함.

- 시민당은 유럽재건기금(Next Generation EU)의 중요성과 재정동맹 추진을 강조함.
- 기민/기사당과 자민당은 EU의 공동 부채부담에 반대하고, 역내 코로나19 재건기금은 일시적이어야 한다고 언급함.
- 녹색당은 유럽 차원의 환경, 연구, 인프라, 교육 투자를 위한 유럽 공동재정정책에 찬성하는 입장이며, 유럽 내 반도체 산업 강화를 강조함.

16) Bundeswahlgesetz(BWG), <https://www.bundeswahlleiter.de/dam/jcr/2596ba8d-34e4-4c9b-a731-a27f8fb0618f/bundeswahlgesetz.pdf>(검색일: 2021. 9. 23).

17) Deutsche Welle(2021. 9. 17), "German election: 85,000 adults with disabilities can vote for the first time," <https://www.dw.com/en/german-election-85000-adults-with-disabilities-can-vote-for-the-first-time/a-59216367>(검색일: 2021. 9. 20).

18) 각 정당별 홈페이지 공약 참고.

19) 한국은 탄소중립이 정책목표 대상이나, 유럽에서는 기후중립(climate neutral)이 이에 해당됨.

표 2. 대EU 정책에 대한 정당별 공약

구분	기민당	사민당	녹색당	자민당	좌파당	독일대안당
유럽의회의 입법제한권	✓	✓	✓	✓	✓	-
공동외교안보정책(CFSP)에서의 기중다수결(QMV)	✓	✓	✓	✓	-	-
EU 집행위원회의 축소	✓	-	-	✓	-	-
투명한 EU 정상회의	-	-	✓	✓	✓	-
공동부채 발행	X	-	-	X	✓	X
Next Generation EU 기금의 영구화	X	-	✓	X	✓	X
유럽군대(European armed forces)	✓	✓	✓	✓	X	X
EU 세금	✓	✓	✓	X	✓	X
유럽 최저임금 기준	-	✓	✓	-	✓	-
유럽 실업보험	X	✓	✓	-	-	-

참고: X 반대, ✓ 찬성, - 의견 없음.

자료: LSE Euopp 블로그에서 일부 발췌, "What the 2021 election manifestos tell us about the views of German parties on the EU," <https://blogs.lse.ac.uk/euoppblog/2021/08/12/what-the-2021-election-manifestos-tell-us-about-the-views-of-german-parties-on-the-eu/>(검색일: 2021. 9. 24).

■ [외교] 미국과 중국에 대한 입장은 대부분의 정당이 유사하나, 대러시아 관계에 대해서는 입장이 상이함.

- 대미국: 사민당, 기민/기사당, 녹색당 모두 대서양 협력관계 강화에 동의
- 대러시아: 좌파당과 독일대안당이 친러 성향을 띠는데 비해 사민당은 다소 중립적이며, 기민/기사당과 자민당은 러시아 제재에 찬성하는 입장이고, 녹색당은 노르드스트림 2 프로젝트 중단 등 가장 강경한 반러 입장임.
- 대중국: 중국은 경쟁자이자 협력 상대라는 인식을 공유함.

4. 정부 구성 전망

■ [연정 시나리오] 사민당은 독일대안당을 연정 상대로 고려하지 않으므로, 이를 제외한 △녹색당, 자민당과의 '신호등 연정' 혹은 △기민/기사당과의 대연정이 가능하나, '신호등 연정'을 선호할 것으로 전망

- 사민당+녹색당+자민당(신호등 연정): 3당 협상의 성공은 녹색당과 자민당 간의 이견을 좁힐 수 있는지에 달려있으며, 성공 시 통일 이래 최초로 연방 차원 3당 연정이 형성됨.²⁰⁾
 -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1950년대 이후 3당 연정을 실시한 적이 없음.
 - 녹색당은 환경을, 자민당은 산업과 비즈니스를 중시하여 어려운 협상이 될 것으로 전망
 - 2017년 총선 이후 기민/기사당도 자민당 및 녹색당과 연정 협상을 시도했으나 자민당과 녹색당 간 이견 조율 난항으로 실패

20) 사민당을 대표하는 색상이 빨간색, 녹색당은 녹색, 자민당은 노란색인바, 정당별 색상 조합이 신호등을 연상시켜 '신호등 연정'이라고 부름.

- **사민당+기민/기사당(대연정):** 주니어 파트너 정당을 하나만 두기 위해서는 기민/기사당과의 대연정을 염두에 둘 수 있으나, 사민당은 가능한 기민/기사당보다는 다른 정당을 선호할 것으로 보임.
 - 이미 2005년, 2013년, 2017년에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대연정에 참여하면서 양대 정당간의 정책적 간극이 좁혀졌으나, 이 때문에 사민당의 색채가 약해졌다는 비판도 받았음.
- 녹색당 및 좌파당과 좌파연정 구성에 대한 언급도 제기되었으나 이들로는 의회 과반을 얻지 못하며, 극우성향의 독일대안당은 연정 협상 대상으로 일체 거론되지 않고 있음.
- 사민당의 연정구성 실패 시 기민/기사당에도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나, 유일한 가능성이 기민/기사당, 녹색당, 자민당의 구성이어서 실현 가능성은 희박

■ **[연정협상 장기화 가능성]** 연정 참여 정당간의 요구사항을 조절하기 위해 사민당 주도의 연정협상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이며, 협상 장기화로 정부 구성이 지체될 것으로 전망됨.

- 2017년 9월 24일 총선 이후 연정협상이 마무리된 2018년 2월 7일까지 총 136일이 소요되었는데, 이번에도 이와 유사하게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. **KIEP**